

2023. 08. 25.(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8월 2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2133-7039

주택정책연구팀장

강대만

2133-7040

주택시장분석팀장

박현정

2133-704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15쪽

누리집

www.seoul.go.kr
분야별정보(주택)→ 자료실

'올 하반기 2만3천호 입주 예정' 서울시, 아파트 입주전망 공개

- 8.28.(월) 향후 3년 간 아파트 입주예정 정보 공개... 지난 2월 이어 두 번째
- '23~'25년 연평균 4만3천 호 공급 예상... '22년 대비 웃돌아 공급 안정 기대
- 주택사업 유형, 위치, 공급세대수 등 비롯해 '아파트단지명, 분양·임대세대수'도 제공
- 시 "시민에게 꼭 필요하고 유용한 주택 정보 꾸준히 발굴, 제공하기 위해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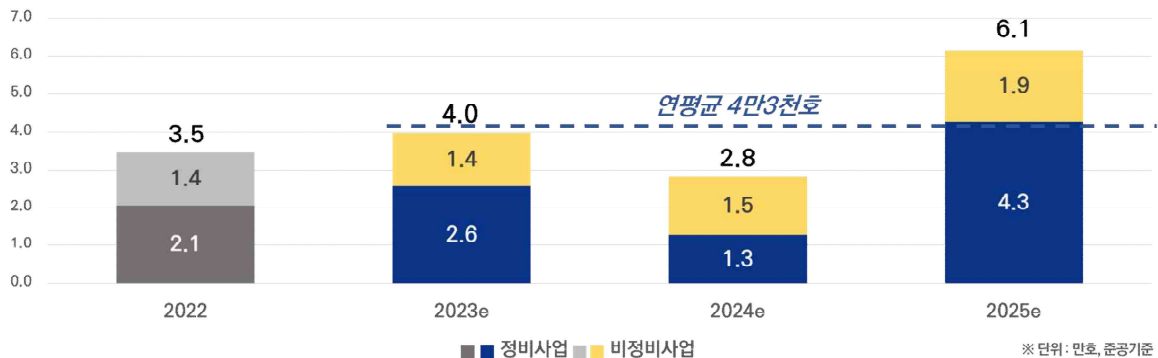
☐ 올해 상반기 서울 시내에 아파트 1만7천 호가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반기에는 2만3천 호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 2월 시가 예측했던 물량 대비 약 6천 호 늘어난 올해 총 4만 호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는 8.28.(월)부터 누리집을 통해 '2023~25년도 아파트 입주예정 실적 및 전망'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아파트 입주예정물량과 사업장 목록을 내놓은 이후 두 번째 발표다.

○ 시는 민간 부동산업체 등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예측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시장과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를 막고, 주택 구입이나 이사를 앞둔 시민의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물량 정보를 제공기로 했다.

□ '23년은 지난해와 비교해 약 5천 호 늘어난 4만 호, '24년 2만8천 호, '25년 6만1천 호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3년 간('23~'25년) 연평균 4만3천 호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2년(3만5천 호) 대비 연평균 공급이 약 8천 호 상회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 공급이 차츰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올해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 재정비촉진사업 등)을 통한 공급과 함께 역세권 주택사업·청년안심주택·공공주택 등 시가 파악하고 있는 비정비 사업까지 포함하는 물량이다.



구 분		실적	향후 3년 전망							
		'22년	'23년			'24년	'25년	합계	연평균	비율(%)
			총계	상반기	하반기					
아파트		34,693	39,868	17,334	22,534	28,317	61,485	129,670	43,223	100.0
	정비사업	20,658	25,695	11,361	14,334	12,823	42,800	81,318	27,106	62.7
	비정비사업	14,035	14,173	5,973	8,200	15,494	18,685	48,352	16,117	37.3

※ 주택사업별 세부 구분

-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 비정비사업 : 공공주택, 청년안심주택, 역세권주택사업 등

※ 입주 예정 물량은 사업장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이번 자료는 지난 2월 시가 발표한 예측물량과 비교해 일부 차이가 있는데 이는 대규모 정비사업장의 입주예정 시기가 조정되고, 세대수가 소폭 변경된 사업장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 분	'23년 예측 물량			'24년 예측 물량			'25년 예측 물량
	'23.2월 기준	'23.8월 기준	증감	'23.2월 기준	'23.8월 기준	증감	'23.8월 기준
아파트	33,338	39,868	+6,530	38,512	28,317	-10,195	61,485
정비사업	18,739	25,695	+6,956	22,889	12,823	-10,066	42,800
비정비사업	14,599	14,173	-426	15,623	15,494	-129	18,685

- 개포주공1단지 입주예정 물량(6,702세대) 중 조합원 입주시기(5,045세대)가 당초 '24년 1월에서 오는 11월로 앞당겨지면서 올해 입주량 증가에 영향을 줬다.
- 여기에 신반포4지구(3,308세대) 입수도 '24년에서 '25년으로 연기되면서, 내년 총 1만여 세대의 입주예정 물량이 감소했지만 '25년에 둔촌주공(12,032세대), 장위4구역(2,840세대) 등 대단지 입주가 집중돼 '24년 공급 부족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는 28일(월) 입주예정 물량뿐 아니라 주택사업 유형, 위치 정보, 공급세대수, 준공예정년도 등 아파트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주예정 단지목록'과 '입주예정 단지 위치도'도 함께 제공한다.

- 아울러 이번에는 총 세대수 외에도 임대 및 분양세대수, 입주예정 시기(월), 아파트 단지명도 제공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사를 계획 중인 시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023~25년도 아파트 입주예정 실적 및 전망' 정보는 8.28.(월)부터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내 '분야별정보→ 주택→ 주택·건축 자료실→ 주택통계정보'에서 열람 및 내려받아 확인하면 된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시장 불안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주택 마련이나 이사 준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2023~25년 아파트 입주예정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며 “앞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하고 유용한 주택 정보를 꾸준히 발굴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서울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지도(`23~`25년, 연도별).